

지진희 “대본 보는 순간 쉬고 싶은 마음 사라져”



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앵커가 특종 보도를 앞두고 아들의 유괴 사건을 마주한다. 4일 첫방송을 시작한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1의 비극' (이하 '더 로드')은 유괴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물 간의 얽히고설킨 비밀이 드러나는 미스터리극이다. 극 중 '국민 앵커'로 불리는 백수현을 연기한 배우 지진희(50)는 4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힘도 들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대본을 보는 순간 끝림이 있었다"며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어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다. 하지만 감독님이 힘을 주셨고 다른 출연진들을 보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앵커 역을 맡았다는 그는 "실내에서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앉아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완전히 속았다"며 "비 맞고 상처까지 입으며 산속을 뛰 어다녔다"고 웃었다.

수현의 배우자이자 재벌그룹 회장의 딸인 서은수 역을 맡은 윤세아(43)는 "우연히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집안 딸 역할을 많이 했다"면서도 "이전 작품과는 달리 은수는 물욕이 거의 없다. 재

유괴 사건 진실 둘러싼 미스터리 '더 로드' 출연 기존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 보여줄 수 있어 도전

산을 마다하고 가정과 아이,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또 12년 만에 지진희와 부부로 다시 만난 소감을 묻자 "그때는 맛있는 대선배여서 좀 어려웠는데,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까 달라 보인다"며 "철철 넘치는 인간미를 느끼면서 아주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진희도 "영화 '평행이론'에서 부부로 만났는데 다음에는 예쁜 느낌의 멜로극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다"며 "그때와 다름없이 변함없이 아름다우시고 밝으셔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수현의 직장 동료이자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앵커 차서영 역을 맡은 김혜은(48)은 "원래 꿈이 앵커였다. 이 작품을 통해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어려운 역할이라 겁을 많이 냈는데 작품을 하면서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배우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예상치 못하게 한계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김노원 PD는 "범인이 누구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인물의 마음속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넓은 의미의 미스터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물 한 명 한 명이 진실과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며 "그게 무엇인지 같이 궁금해하다 보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드라마 '마인' 이나정 감독 美 할리우드 매니지먼트와 계약

드라마 '마인'의 이나정(사진) 감독이 미국 할리우드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독의 영화 '눈길'의 해외배급을 맡았던 화인컷은 이 감독이 브릴스테인 엔터테인먼트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고 4일 전했다.

브릴스테인은 35년 이상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과 작가, 배우, 제작사 등의 매니지먼트를 해 온 회사로, 배우 애덤 샌들러와 브래드 피트, 피트의 제작사인 플랜B가 속해 있다.

이 감독은 미국 매체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관객은 좋은 콘텐츠를 즐긴다. 국적, 언어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인컷은 "이 감독의 할리우드 매니지먼트 계약은 한국 여성 감독으로서, 드라마 연출자로서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감독은 KBS2 드라마 스페셜 '연우의 여름'과 미니시리즈 '쌈, 마이웨이', 2부작 드라마 '눈길'과 이를 각색한 영화 '눈길', 넷플릭스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1', tvN 미니시리즈 '마인' 등을 연출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왔다. /연합뉴스



김종국·차태현·이현이·이선빈 등 MBC 오디션 '극한데뷔 야생돌' 출연



김종국, 차태현, 이현이, 브레이브걸스 유정, 김성규, 이선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TV '극한데뷔 야생돌' (이하 '야생돌') 측은 프로그램에 김종국, 차태현, 이현이, 이선빈, 김성규,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출연한다고 3일 밝혔다.

김종국은 MC를 맡고 나머지는 참가자들을 살펴보는 '관찰자'로 출연한다.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야생에서 펼쳐지는 지원자들의 생존 과정을 지켜보는 형식으로 방송된다. 참가자들은 체력과 실력, 숨겨진 가능성을 평가받으며 순위 경쟁전에 나선다.

다음 달 방송 예정. /연합뉴스

BTS '버터' 을 최장기간 빌보드 1위 등극...9주째 정상 유지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올해 들어 가장 오래 1위를 지킨 곡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2일(현지시간)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최신 순위에서 통산 9주째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버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Drivers License)가 지닌 기록(통산 8주)을 뛰어넘어 '올해 최장기간 핫 100 1위 곡' 타이틀을 얻게 됐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미국 음악시장의 '괴물 신예'로 불리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곡으로, 올해 1~3월 총 8주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바 있다.

지난 5월 21일 발표돼 발매 두 달 만에 지난 '버터'는 BTS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에 1위를 넘겨준 한 주를 제외하고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발매와 동시에 7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뒤 지난달 '퍼미션 투 댄스'에 정상 바통을 넘겨줬다가 복귀해 다시 2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진기록을 쓰고 있다.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번갈아 1위를 기록하며 BTS의 핫 100 집권도 장장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BTS의 핫 100 1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 유명 라디오 쇼에 출연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위 힛수는 '다이너마이트'(3회), '세비지 러브' 리믹스(1회), '라이프 고스 온'(1회), '퍼미션 투 댄스'(1회), '버터'(9회) 등 총 15회로 늘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지난주 7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9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10위권에 BTS의 두 곡이 3주 연속으로 진입했다.

'버터'는 발매 10주 차인 23~29일에 전주보다 2% 하락한 11만2900건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 주를 제외하고 총 9주 동안 10만 건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꾸준함을 보였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